

【01-4】

보건소 만성질환관리프로그램에 연계한 영양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이경희, 전해정, 유현주¹⁾, 정계옥*, 진예원, 박혜련²⁾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¹⁾, 명지대학교 식품영양학과²⁾

Development of computer-aided nutrition counseling program linked with the chronic disease care program for health centers

Kyung Hee Lee, Hye Juong Jeon, Hyun Joo Ryou¹⁾, Gye Ok Jeong*, Ye Won Jin, Hae Ryun Park²⁾

SeongDong public health center1),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Myongji University2)

산업사회의 발달과 경제수준의 향상 등으로 인한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모는 개인이나 집단의 식생활에 영향을 주었고 부적절한 식습관은 영양상태의 불균형으로 연결되어 만성질환의 이환율이 높아지고 있다. 영양 교육과 상담을 통한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가 괄목할만한 성과를 가져오는 것이 입증되면서 보건소를 방문하는 주민들의 영양 상담에 대한 요구도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보건소 영양사업 담당자들은 체계적인 영양상담 시스템 개발이 부족하고 타부서와 업무가 원활히 연계되지 않아 대상자의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서울시 성동구 보건소는 환자들의 영양상태 및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식사진단 및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존의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에 연계함으로써 주민 건강관리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영양상담 및 평가 프로그램의 DB 구축은 대상자 정보와 음식 정보로 크게 구분하였다. 개인정보와 음식의 재료구성, 음식재료별 영양정보, 상차림정보가 서로 연결되어 대상자가 선택한 음식의 영양소량이 계산되고, 개인의 연령, 성, 체중, 활동정도를 고려한 소요량과 권장량을 비교하여 영양 진단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우선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한 끼 식사내용을 입력하여 계산되어진 영양소 섭취량을 한국인의 1일 영양권장량의 1/3로 추정하여 한 끼 식사진단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이와 같은 원리로 3끼를 합하여 하루 식사진단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프로그램을 만성질환관리프로그램에 연결하여 만성질환 이환자나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타부서에서도 정보를 공유하여 중재활동에 참조할 수 있도록 연계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개발로 앞으로 영양상담사업의 기본 틀을 제시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상담실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영양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타부서에서도 영양상담 정보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건강을 관리하는데 도움을 받을 것이라 사료된다.